

2017년 12월 17일, 한림읍 귀덕1리 김천혜 씨 덕, 송정희 조사.
 김천혜(여, 1938년생, 한림읍 귀덕1리)

- 줄거리: 자신의 딸은 팥죽을 먹이고 의붓딸은 콩죽을 먹였다. 자신의 딸은 팥죽을 먹여 얼굴에 뽀족뽀족한 것이 나서 못생겨졌고, 콩죽을 먹은 의붓딸은 얼굴이 살이 찼다.

[제보자] 다슴아기. 이녁 딸은 찻죽을 쑤 멕이고 다심딸은 콩죽을 쑤 멕였인디. 이녁 딸 찻죽 쑤 멕인 애긴. 그 찻. 찻이 빨건 거 뽀족뽀족 나명 막 지치고 찻이. 찻이 영양 엇인고라. 지치고. 콩죽 쑤 큰 아긴 민작허게 곱고. 더 건강해낫젠 그런 소문 그런 말은 해낫지게.

이녁 아긴 찻죽만 쑤 멕이단 보난 지천 찻이 드랑드랑 얼굴에 뽀족뽀족뽀족허고, 콩죽 쑤 멕인 아긴 민작허게 곱완. 구름이 나게 슬지고 경 헛젠. 그런 말 셔낫어. 옛날 콩죽, 찻죽 해영. 건디 우리 동네엔 경 현 사름도 엇고.

- 핵심어: 콩죽, 찻죽(팥죽), 다심딸(의붓딸), 얼굴